

# 금융투자업규정

<목 차>

1.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신용진
	담당부서 (과)	자본시장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이윤수		연락처	02-2100-2644
	과장	변제호		이 메 일	yongjinshin@korea. kr

정 책 책 임 자 직 위

성 명 (서 명)

## 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		
	2.규제조문	금융투자업규정 제2-24조제1항제4호라목, 제3-41조의2		
	3.위임법령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(규정 제2-24조), 법 31조 및 시행령 35조(규정 3-41조의2)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1.7.22.~2021.8.31.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ELS헤지가 특정분야(원화자산, 여전채)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시장 충격발생시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전이할 가능성이 있고,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은 여타 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으나, 특정분야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는 부재</li> <li>○ 또한,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유동성 비율(1개월·3개월)을 100%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,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되어 적절한 건전성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</li> </ul>		
	7.규제내용	<p>❶ 해외지수*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(예:10~20%)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(안 제2-24조제1항제4호라목)</p> <p>* 해외주가지수, 환율,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원자재지수 등</p> <p>- 외화 유동자산 등은 단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</p> <p>* 외화현금, 외화예금, 외화 크레딧라인, 통화스왑, 미국 국공채 등</p> <p>❷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일정수준 까지만 편입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(안 제2-24조제1항제4호라목)</p> <p>❸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(1·3개월) 100%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되, 규제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시행세칙에 위임(안 제3-41조의2)</p>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피규제집단)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금융투자업자</li> <li>○ (이해관계자)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등</li> </ul>		
	9.규제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,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</li> <li>○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사의 건전성을 강화</li> </ul>		
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	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	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
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해당사항 없음		
기타	12.일 물 설 정 여부	해당사항 없음		
	13.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사항 없음		

## 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(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	4.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라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
<u>&lt;신설&gt;</u>	제3-41조의2(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) ① 파생결합증권(제2-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.)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

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 
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  
지하여야 한다.

1.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  
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  
율: 100분의 100이상

2.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  
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  
율: 100분의 100이상

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 
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 
다.



##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ELS헤지가 특정분야(원화자산, 여전채)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전이하고,
  - 위기상황에서 증권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해외파생상품거래소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
    - \* '19년말 기준 헤지자산 117.5조원 중 해외채권은 8.6조원(7.3%)에 불과하며 해외채권 대부분이 한국기업발행 해외채권으로 환금성이 크게 제약
    - \*\* '19년말 기준 헤지자산인 채권 78.7조원 중 여전채는 15.7조원으로 20% 수준
  -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은 여타 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으나, 특정분야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는 부재하여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
- ☐ 또한, 원화 유동성 비율(1개월·3개월)을 100%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,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 산정시 일부 미흡한 측면 존재
  - ① ELS는 조기상환\*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조기상환(통상 3개월~6개월)과 무관히 최종만기(통상 3년)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
    - \* ELS 최초 조기상환 시점 상환비율(%) : ('16)98.2 ('17)92.9 ('18)48.7 ('19)61.9
    - 조기상환에 대응을 위해 잔존만기가 3(1)개월을 초과하는 발행잔액 중 15(5)%만을 유동부채로 산정
  - ②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\*
    - \*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(1·3개월)유동성비율을 100%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, 일반증권사는 (3개월)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간접 강제 중

#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규제대안의 내용

	대안명	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
규제대안1	내용	<p><b>①</b> 해외지수*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(예:10~20%)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(안 제2-24조제1항제4호라목)</p> <p>* 해외주가지수, 환율,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원자재지수 등</p> <p>- 외화 유동자산 등은 단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</p> <p>* 외화현금, 외화예금, 외화 크레딧라인, 통화스왑, 미국 국공채 등</p> <p><b>②</b>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일정수준 까지만 편입하도록 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(안 제2-24조제1항제4호라목)</p> <p><b>③</b>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(1·3개월) 100%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되, 규제비율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시행세칙에 위임 (안 제3-41조의2)</p>

## ○ 규제대안의 비교

- 1) **현행유지안** : 기초지수 가격 급락에 따라 증권회사가 마진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, 적절한 규모의 외화자산(주로 달러화)을 단기간에 조달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산위험이 증가하고 단기금융시장·외환시장에 충격을 전이
- 2) **규제대안1** : 증권사가 ELS 자체헤지를 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화유동자산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등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마진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, 특정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전이를 효과적으로 차단가능. 아울러, 유



동성비율을 100%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사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.

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- ☐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	- '20.7월 「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」 발표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실시	-

## 3. 규제목표

- ☐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, 여전채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
- 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사의 건전성을 강화

## II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☐ 증권사의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증권사의 내부 경영상황과 자산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며,
- ☐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해당 수단 외 별도 수단이 없음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우선허용· 사후규제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 영향평가

☐ 해당사항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☐ 해당사항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☐ 동 규제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인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로  
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☐ 해당사항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☐ 해당사항 없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☐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☐ 해당사항 없음

○ 타법사례

☐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규제 의 실효성

#### 1. 규제의 순응도

##### 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☐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

#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##### 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'20.7월 제도개선 마련 당시 업계 등과 충분한 의사소통 및 시물레이션을 통해 집행가능성 기 확보

##### 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해당사항 없음

#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# 1. 추진 경과

- ☐ '20.7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

#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☐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적절히 마련되는지 감독하는 한편, 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

#### 3. 종합결론

- ☐ 기초지수 급락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내재된 위험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